

2021년 서울 정신건강

ISSUE&BRIEF

이 슈 앤 브 리 프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 연도별 추이

2021년
제 1호



위의 자료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서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014년 부터 2019년까지 전국 및 서울시에서 중증정신질환 (F20-29, F30, F31, F32.3, F33) 으로 진단받아 입원하거나 외래치료를 받은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중증정신질환 정의

“ 「장애인복지법」 제 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정신장애 판정 기준」과 전문가 자문 의견을 토대로 정의 ”

F20-F29

조현병 ·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

조증 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2.3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우울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ISSUE&BRIEF

이 슈 앤 브 리 프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 연도별 추이



중증정신질환자란?

해당 질환코드를 주상병으로 1회 이상 의료이용(입원 또는 외래)을 한 사람.

- 한방 의료기관 및 치과에서의 의료이용은 제외
- 위의 중증정신질환자 정의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것으로 다른 연구에서는 달라질 수 있음

$$\text{중증정신질환 1년 유병률} = \frac{\text{해당연도 중증정신질환자수}}{\text{해당연도 의료보장 인구수}}$$

전국 중증정신질환 1년 유병률 및 서울시 중증정신질환 1년 유병률

“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의 1년 유병률을 살펴본 결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정의된 모든 중증정신질환의 경우 F30를 제외한 모든 질환이 2014년에 비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

중증정신질환 유병률 연도별 추이

(유병률)

○ 전국 ● 서울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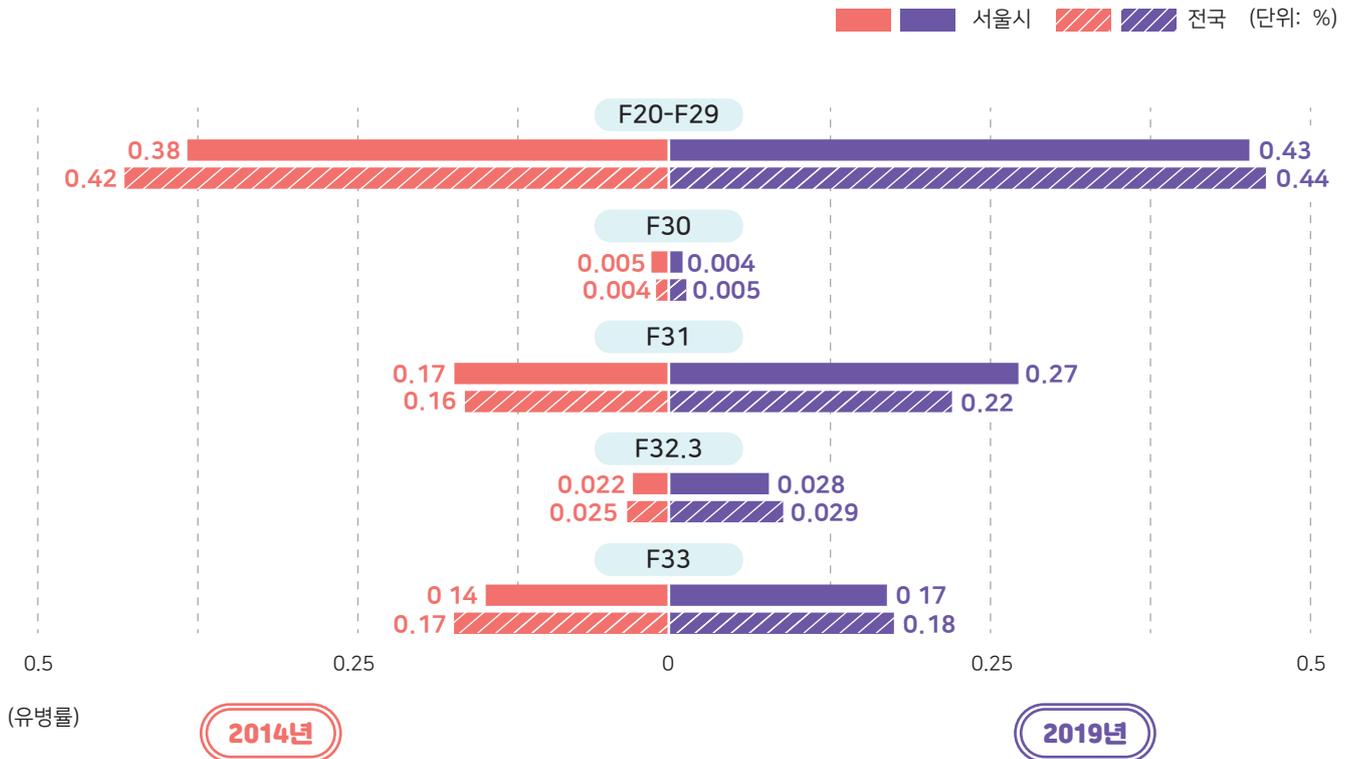


ISSUE&BRIEF

이 슈 앤 브 리 프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 연도별 추이

중증정신질환별 유병률 연도별 비교



서울시 자치구별 중증정신질환 유병률

각 자치구 중에서 서울시 전체 1년 유병률보다 높았던 지역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강서구 (15개)

2014년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금천구 (12개)

2019년

각 자치구 중에서 서울시 전체 1년 유병률보다 낮았던 지역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0개)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강서구, 동작구, 관악구 (13개)

ISSUE&BRI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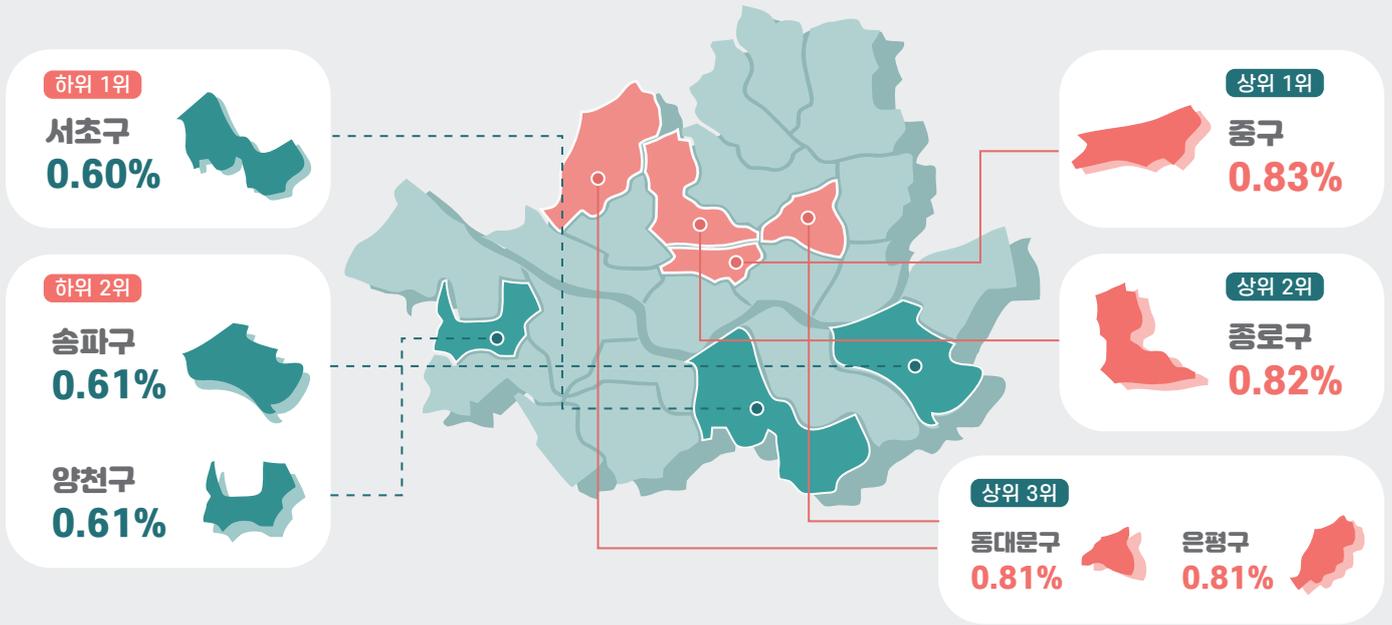
이 슈 앤 브 리 프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 연도별 추이

“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 자치구별 중증정신질환 유병률은 증가하였다. 2014년에 서울시보다 높은 유병률이었던 강서구, 동작구, 관악구는 2019년에는 서울시 유병률보다 낮아졌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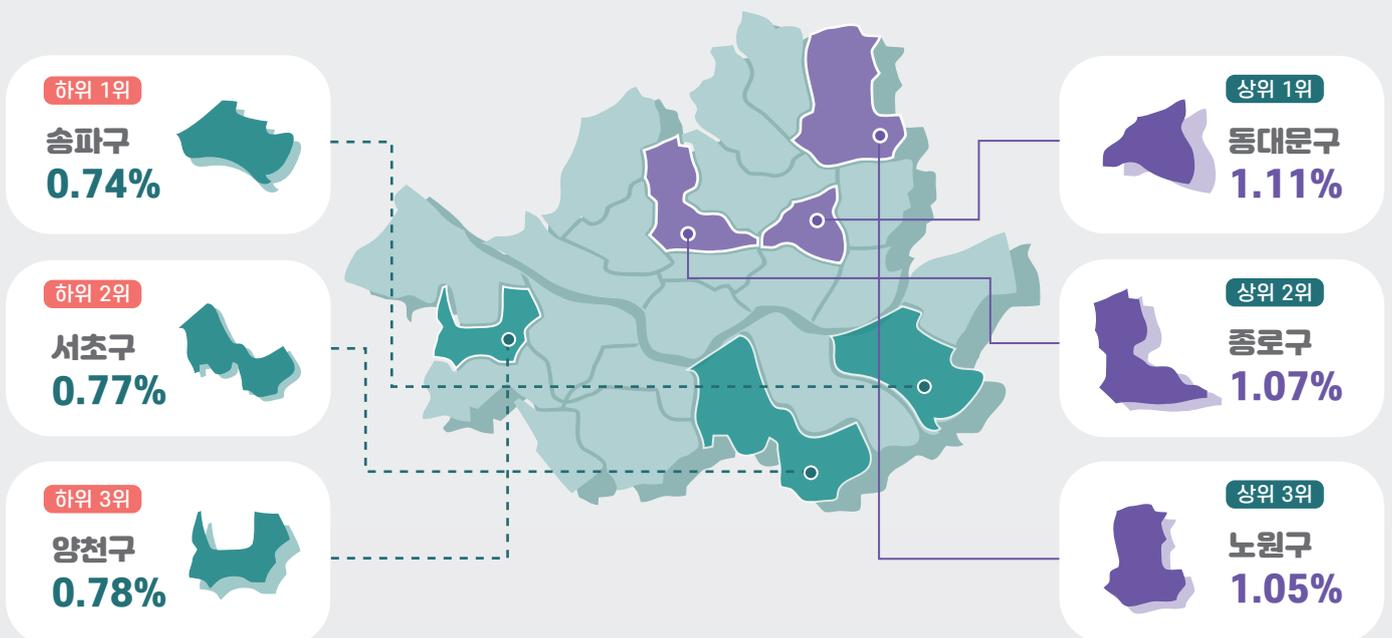
2014년

(단위: %)



2019년

(단위: %)



ISSUE&BRIEF

이 슈 앤 브 리 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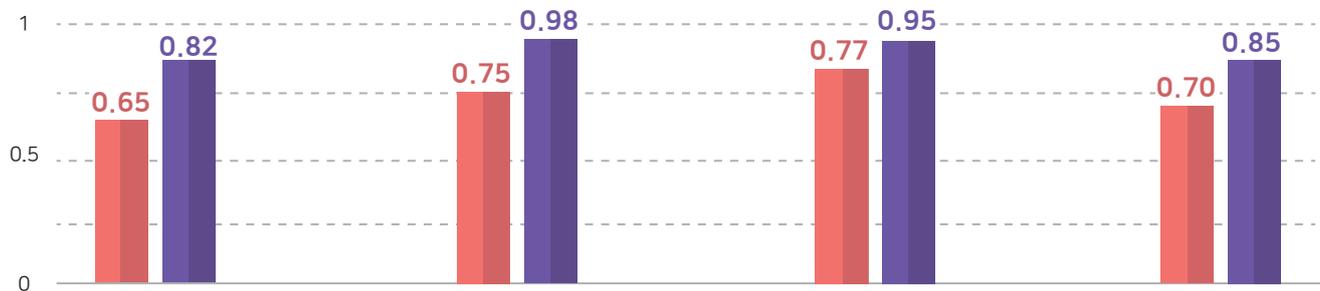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 연도별 추이

서울시 권역별 중증정신질환 1년 유병률

“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 권역별 중증정신질환 1년 유병률은 증가하였다. 동남권역은 2014년과 2019년 모두 가장 낮았고, 가장 높았던 권역은 2014년에 서북권역에서 2019년에 동북권역으로 바뀌었다. ”

권역구분 참고: 서울시 제 7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공공의료 권역 구분

2014 2019 (단위: %)



동남권역

서초, 강남, 송파, 강동

2014년과 2019년
중증정신질환
1년 유병률 **가장 낮음**

동북권역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2019년 중증정신질환
1년 유병률이 **가장 높음**

서북권역

종로, 중구, 용산, 은평,
서대문, 마포

2014년 중증정신질환
1년 유병률이 **가장 높음**

서남권역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2014년과 2019년
중증정신질환
1년 유병률 **낮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별 유병률 증가

- 정신의료기관의 문턱이 낮아져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는 것으로 해석



OECD 국가 정신증상 경험 1년 유병률 결과¹⁾ (2.0) 에 비해 서울시 1년 유병률 (0.9) 은 낮은편

- 병원을 방문하여 외래 또는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실제 중증정신질환자 수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1) McGrath JJ et al., Psychotic Experiences in the General Population: A Cross-National Analysis Based on 31261 Respondents From 18 Countries. JAMA Psychiatry. 2015;72(7):697-705



서울시 자치구, 권역별 중증정신질환 유병률 상·하위 지역 격차

- 자치구별로 인구 구성 등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변화로, 중증정신질환자 서비스를 지역별로 차이를 두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별 분석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임